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문공보담당자 검사 홍준현

전화 063-570-4303

보도자료

2023. 4. 26.(수)

제목

가출 청소년들을 구타한 속칭 '가출팸' 대장의 실종아동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 내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4. 21. 가출 청소년 2명(15세, 13세)에게 절도를 시키고, 이들을 4일에 걸쳐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속칭 '가출팸* 대장'(19세)이 6일 동안 주거지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던 점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위 '가출팸 대장'의 실종아동법위반 행위를 추가로 밝혀 내 구속 기소하였음

* 가출팸: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인 은어

□ 검찰은 경찰로부터 위 '가출팸 대장'에 대한 구속사건을 송치받은 후 원룸 월세계약서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 숙식 제공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조직적 '차털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가출 청소년(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있으면서(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법) 위반) 저지른 범행임을 밝혀내었음

□ 앞으로도 검찰은 청소년들이 사회 안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1

사건 개요

① 사건 관계인

- 피고인 : A○○(남, 19세)
- 피해자 : 가○○(남, 15세), 나○○(남, 13세)

② 공소사실 요지

- '23. 3. 15.~20. 가○○·나○○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절도, 절도미수]
- '23. 3. 17.~20. 피해자 가○○·나○○이 차털이로 훔친 금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감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구타하고,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식칼로 혀를 자를 것처럼 위협[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 '23. 3. 15.~20. 가○○·나○○이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룸에 보호[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

수사 경과

- '23. 3. 30. 피고인 구속(정읍경찰서)
- '23. 4. 3. 피고인 구속 송치
- '23. 4. 6. 피고인(2회), 피해자들 조사, 범행도구인 식칼, 피고인·피해자들 거주 원룸 월세계약서 확보 등 보완수사
- '23. 4. 20. 피고인에 대한 실종아동법위반 혐의 인지
- '23. 4. 21. 구속 기소

① 검찰의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 실체 규명

- 검찰은 구속사건 수사 중, 피해자들에 대한 4일 동안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범죄장소가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확인되고, 피해자들도 가출 이후 피고인과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여, 성년인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보호한 실종아동법위반 혐의 포착

※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종아동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숙식을 함께 한 경위,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계약서를 확보

- 피고인의 모친이 원룸을 구해준 사실, 피해자들이 공동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절도를 모의한 사실 등을 확인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원룸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실력적으로 지배하였음을 확인

-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 진술을 이끌어내고, 절취한 금품은 자신의 생활비·유홍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 전모 규명

②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속칭 '가출팸'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음☑